

‘社會主義榮辱觀’과 當代 中國의 사회풍기 고찰¹⁾

千賢耕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방관 풍조와 이기심이 빚어낸 풍경
- II. 중국 정부의 대응 - 처벌과 독려
 - 1. ‘불구조죄(見危不救罪)’의 立法化
 - 2. ‘의로운 영웅(見義勇爲英雄)’ 표창
- III. 公民教育의 강화 - ‘社會主義 榮辱觀(8榮8恥)’
- IV. 나오는 말

I. 문제의 제기 - 방관 풍조와 이기심이 빚어낸 풍경

세계의 중심(中華)에서 변방으로 소외되었던 중국은 다시 ‘중심’으로의 복귀를 꿈꿀 만큼 비약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 기획인 풍요시대, 즉 ‘小康社會’의 꿈 역시 익어간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소강시대 중국의 대지 위에는 어두운 망령 - 즉, 魯迅이 탄식했던 방관적 ‘구경꾼’ 심리 -이 여전히 배회하는 듯하다. 뿐만

1)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지원번호 KRF-2003-074-AM0011)

아니라 富國의 꿈을 위해 ‘公富’를 유보하고 제시되었던 ‘先富論’과 致富에 대한 동경은 수억 인민의 욕망으로 표출되며²⁾ 우울한 풍경화를 그려내기도 한다.

소강사회는 ‘풍요’와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현대 중국 사회에는 오히려 무언가 ‘결핍’된 ‘부조화’의 사회풍조가 펼쳐진다. 타인의 위험을 수수방관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구경거리로 삼는 듯한 사건들, 즉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배려나 관심의 결핍으로 빚어지는 사건들이 연일 보도된다.

중국의 검색사이트에 들어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다(見危不救)”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우울한 사건들이 쏟아져 나온다.³⁾

2)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현대화’ 기획에 따라 관방과 민간 모두의 긍정과 지지를 얻게 되며, 致富에 대한 욕망이 정당화된다. “中國則首先遭遇了對資本主義(包括商品交換本身)的堅定批評態度。改革開放后,作為現代化基礎的交換價值及其意識共同體,得到中國官方和民間的共同確認。” 蔣玉林, 「八榮八耻:中國現代意識的自我認知」, 『實事求是』, 2006年 第5期, 19쪽

3) 수많은 사건들 중 몇몇 사례만 들어본다. 2005년 10월 4일 베이징의 726번 시내버스에서 14세 소녀가 버스요금 때문에 버스승무원과 다투다가 목이 졸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버스 안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지만 아무도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 <清華教授女兒與公交車售票員發生衝突後喪命>新華網(http://news.xinhuanet.com/legal/2005-10/12/content_3606936.htm). 2005년 10월 12일

2005년 4월 18일, 衡水鬧市的 한 공중화장실에서 19세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는데, 20여분의 과정동안 화장실 주변에 있던 40여명의 시민들은 구경만 할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女孩公廁內被拾荒男子強姦 40餘人圍觀無人制止」, 『燕趙都市報』騰訊新聞網 (<http://news.qq.com/a/20050426/001331.htm>), 2005년 4월 26

成都에서는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술집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주저하자 일부 구경꾼들은 “하나, 두울, 셋, 뛰어!”라고 구령을 붙여주기까지 하였다. (“重目睽睽之下, 竟有看客大喊‘一,二,三 — 跳嘛!’.”) (2004년 4월 22일 『天府早報』) / 重慶의 한 노동자는 고생해서 번 돈을 사기당하자 자살극을 벌였다. 그가 칼로 자해하자 군중 속에서는 “한번 더 찔러!”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竟有圍觀者大喊:‘再來一刀!’.”) (2005년 3월 1일 『重慶時報』) 2005년 4월 14일 / 2005년 8월 5일, 吉林省 公主嶺시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났다. 마침 부모가 집을 비워 4살짜리 어린 여자애만 집에 있었으므로 급히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그곳의 민영소방대(吉林省自家家民營소방대)에서는 소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동을 거절하였다. (“消防隊見死不救與消防隊的現實困境”

잔혹해보이기까지 한 일련의 사건들 뒤에는 표면적 충격보다 무관심·방관이라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건관련 인터넷 기사와 네티즌의 댓글은 우울한 풍경화를 그려내는 당사자들의 잘못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버스 요금 시비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 ‘북경 726 버스 살인사건’은 국내에도 알려져 충격을 전해주었다. 특히 한국의 신문기사와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관만 한 승객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방향이 조금 달랐다.⁴⁾ 대부분이 사건의 주범인 여승무원과 운전기사를 비난하는 것이었고, 방관했던 승객들에 대한 비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의 폭력성만큼이나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방관자들의 비정함에는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반응이었던 것이다.

타인의 위협을 보고도 방관하기만 하는 수많은 사건 보도에는 거의 전부 魯迅의 국민성개조운동이 언급되고, 魯迅이 개탄했던 ‘구경꾼(看客)’ 이미지와 심리에 대한 분석이 덧붙여진다.⁵⁾ 魯迅의 눈에 비친 당시 중국인들은 구경이라면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하고, 심

<http://news.sina.com.cn/c/2005-09-09/03017717424.shtml> 2005년9월9일)

4) 일례로 비교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신문기사와 그 제목을 예로 들어본다.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 기사지만, 그 제목은 사건의 핵심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인해 때로는 편집진의 견해와 언론사의 논지를 암암리에 담는 것도 사실이다. 동일 사건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기사 제목을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베이징 시내버스 사망사건에 대해 중국의 기사는 「청화대학 교수 딸이 버스 안에서 매무원과 충돌 후 사망(清華教授女兒與公共車售票員發生衝突後喪命)」(『新華日報』)라는 제목을, 한국은 「사회 정의감不在, 중국사회 충격 - 베이징 726번 시내버스 승객들은 이 소녀가 목 졸려 죽는 걸 구경만 했다」(『조선일보』)는 제목을 뽑았다. 중국의 기사는 사건을 단순 요약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사 제목은 침묵했던 다수의 승객을 비난하는 편집진의 판단과 인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5) 魯迅이 문학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된, 남의 불행을 구경하기만 하는 중국인의 ‘구경꾼 심리’, 즉 방관 심리 때문이었으니 당연한 연관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 길가에서 침을 빨고서 꿰어앉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명 얼마 안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쌀 것이다. (「一思而行」)” “군중, 특히 중국의 군중은 영원한 구경꾼이다. (「娜拉走後怎樣」)”

지어는 사람이 죽는 것조차 즐길만한 ‘구경꺼리’로 여기는⁶⁾ 비정상적인 변태심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21세기 중국에 魯迅이 통탄했던 ‘구경꾼’ 망령이 살아있는 것이다.⁷⁾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보유액이 세계 최고라느니, 미국 등 세계를 상대로 작년 한 해에도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남겼다는 등의 풍요로운 소식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조화와 풍요의 풍경화는 아직 제 모양과 빛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듯하다.

먹고 입는 기본적 경제문제(濫飽)가 해결되고, 이제 삶의 ‘質’으로 인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풍요로운 소강시대에 비인도적 방관풍조가 빚어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좀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부정부패 사건들이 넘쳐난다. 정신과 문명 등 사회발전의 뜻을 뜻하는 ‘앞을 향해(向前看)’라는 구호가 ‘돈을 향해(向錢看)’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사유핵심이 되어버린 오늘날 중국에서 ‘이익’만큼 13억 인민을 매료시키는 것은 없다. 때문에 중국의 현 시장경제 속에서 ‘不益은 못 참아도 不義는 참는다’는 말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패현상은 ‘선부론’의 옹호와 정당성 부여에 편승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 편중현상은 小康 기획의 수혜권 밖으로 밀려난 수많은 인민의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규정위반, 개인, 혹은 소집단의 부당이익 추

6) 『아큐정전』의 마지막 사형장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은 앞서 언급한 자살을 부추기는 사례의 군중과 다를바 없다.“성 안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그들 중 대다수가 불만이였다. 총살은 참수만큼 구경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사건의 비판에는 자주 魯迅이 비판했던 인물형상(현대의 구경꾼)이 재등장하는 것이다.

7) 魯迅 시대의 구경꾼과 21세기 중국의 구경꾼은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비정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구경꾼들은 魯迅시대의 명칭하고 아무 생각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과는 달리 더욱 적극적이고 열광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다. 「圍觀強姦能讓40看客獲得快感?」, 人民網 網友說話(<http://opinion.people.com.cn/GB/1036/3354548.html>), 2005년04월 27일

구행위 등 날로 심각해지는 부패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社會主義榮辱觀’이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신문명 운동을 탄생시킨다.

한편 본 논문이 중국의 ‘부정적’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앞선다. 본 논문에서 언급될 사회현상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힌다. 중국사회에서 보이는 무관심·방관·이기심·부당행위를 통한 이익추구와 부정부패 현상 등에 대한 고찰은 일방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는 타산지석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때문에 본고는 그들의 우울한 현상보다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국민정서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 즉 대응양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중국 정부의 대응 - 처벌과 독려

중국 정부는 무관심과 이기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에 대해 不救助罪(見危不救罪)의 입법화, 공직자의 직무유기 처벌법 강화 등의 정치적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선전을 통한 교화라는 유서 깊은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의로운 영웅(見義勇爲英雄)’ 표창 등이 그것이다.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하지 않는 죄를 처벌하는 것(불구조죄의 입법화)과 위험한 이를 구조한 것을 표창하는 것(의로운 영웅 표창)은 전체 사회의 응집과 조화를 위한 동일 차원의 대응과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1. ‘見危不救’罪의 立法化

고대 중국 사회를 이끌어간 중심 사유체계였던 儒家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규칙”을 특히 강조하였다. 때문에 그들이 상정한 ‘인간다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란 주로 전체 사회(좁게는 이웃)를 위한 것이었고, 유가의 生死관념은 인간 목숨의 사회공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⁸⁾는 인식은 사회적 가치를 구하는 것을 생명이 존재하는 근본의미로 여긴 것이다. 또한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仁을 훼손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仁을 이룬다”⁹⁾는 가르침 역시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비겁하게 육체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을 ‘小人’으로 멸시했던 가치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익과 옳은 것의 선택지 중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捨生取義’ 정신 역시 인간의 물리적 생명과 사회적 인격의 연관성을 논한 것이다.¹⁰⁾

중국은 먼 이전부터 ‘불구조’ 행위를 죄로서 처벌하여¹¹⁾ 사회통합을 유지하려 했고, 유가에서는 ‘見義不爲’라는 말을 통해 불의를 경계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였다. 즉 이웃을 도와주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로움(義)’이라 상정하여, 의로움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용기’가 없는 비겁한 행위라고 가르쳐왔다.¹²⁾ 그러나 앞에서 거론한 사례들, 눈앞에 펼쳐지는 중국의 현실은 전통적 가르침과는 큰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8) “朝聞道，夕死可矣。”『論語』「里仁」

9) “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論語』「衛靈公」

10) “생선(요리)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곰발바닥(요리)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가질 것이다. 목숨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로움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할 것이다.”『孟子』「告子上」

11) ‘불구조죄’와 유사한 법적 구속은 고대 중국에도 존재했다. 『唐律疏議』에는 “諸鄰里被強盜及殺人，告而不救助者，杖一百；聞而不救助者減一等。”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다. 「中國古代法關於夏仇的規定」(好律師網http://www.haolawyer.com/article/view_2243.html)에서 재인용

12) “孔子說：見義不爲，無勇也。”『論語』「爲政」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 행위”를 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은 바로 ‘불구조죄’라는 죄목으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 32인은 위험에 빠진 타인을 도와주지 않는 행위를 법률로써 처벌하자는 ‘불구조죄’를 입법화하고 발의하였다.¹³⁾ 지각 있는 중국인들이 개인적 우려와 통탄함을 넘어 법률로써 제재를 가하려는 이유는 무관심과 방관적 풍조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의 수많은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과 잡지·신문·인터넷 논단에서는 불구조 행위의 법적 제재에 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

한편 불구조죄의 입법화를 찬성하는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한계를 짓는다. 수많은 사례 중에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구조해야 할 직책에 있는 사람들(공직자, 공산당원 등)의 불구조행위이다. 현재 중국형법의 경우 불구조행위에 관한 전문 규정은 없지만 일부 특수 신분(경찰·공산당원 등)의 불구조행위는 직무유기 등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법률적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처벌 사례가 있다.¹⁵⁾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中國共產黨紀律處罰條例)」·「국가공무원임시조례(國家公務員暫行條例)」·「중국공산당기율 조사위원회 안전조사 방해 관련 당조직과

13) “2001年的全國人代會上，即有32名代表就增加刑法罪名提出議案。建議刑法增加新罪名：「見危不救和見死不救罪」”。 2004년 12월 16일 『人民日報』

<http://www.people.com.cn/GB/guandian/35560/3059917.html>

14) 많은 방송채널들이 불구조죄의 입법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각 신문사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齊魯電視台의 경우 2004년12월12일 20시30분에 『齊魯開講』 「불구조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하는가(該不該立法惩治見危不救?)」를 주제로 전문 토론프로그램을 생중계했고(<http://cul.book.sina.com.cn/o/2005-12-08/1634148762.html> 동영상 참조), 개인이나 사설단체 사이트에서도 관련 주제에 대한 장을 만들어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http://www.zhaoni.cn>에서 2004년 12월 27일 실시한 “불구조행위가 ‘죄’로 성립될 수 있는가?(見死不救，見危不救到底能不能成爲一种‘罪’)”토론도 일례가 되겠다.

15) 鄧海建, 「“見死不救罪”是道德問題“泛法律化”」, 國際在線 (<http://gb.cri.cn/3821/2004/12/16/115@393701.htm>), 2004년12월16일.

당원기율 처분 규정(시행령)(中國共產黨紀律檢查委員會關於對妨碍案件查處的黨組織和黨員紀律處分的規定(試行)」·「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中華人民共和國行政監察法)」 등이 이에 해당된다.¹⁶⁾

2. 의로운 영웅(見義勇爲英雄) 표창

‘見義勇爲’란 “자신의 직무 권한 외에서 타인의 신체와 재산이 불법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재난과 위험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¹⁷⁾라고 정의된다. 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중국식 개념일 수 있겠다.¹⁸⁾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이다.¹⁹⁾ 이 법의 종지는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선한 마음이 바로 인간을 가르는 기준”²⁰⁾임을 말하는 것이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며, 그러한 마음이

16) 「중국공산당 기율처분조례」 제153조 등의 법에 따르면 국가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처했을 때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은 경우(“遇國家財產和人民羣衆生命財產受到威脅，能救不救”),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혹은 당내 직무박탈,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당적 박탈을 당할 수 있다. 贛州機關黨建網(<http://www.gzjgdj.gov.cn/oneews.asp?id=398>)

17) “見義勇爲是指在職務範圍之外，制止對他人的人身、財產的不法侵害，或者搶險救災、救助遇難者，一般而言，見義勇爲會使行爲人自己遭受損害，或者承擔損害的風險.”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18) “好撒馬利亞人 (The Good Samaritan)是基督教文化中一个很著名的成語和口頭語，意爲好心人、見義勇爲者.” <http://www.wikipedia.org>

19)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가고, 또 레위人も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누가복음』 10장 제30-37절) 이러한 일화를 배경으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도덕차원의 행위를 무관심과 방관에 대한 처벌 등 법률차원의 제재로 전환시킨 법이다.

20) “人的標準是人心而不是人的身份” <http://zh.wikipedia.org>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바람인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국 건의용위영웅 선정활동(全國見義勇爲英雄評選活動)'은 2006년 10회 째를 맞이하였다. 10월 중순부터 여러 후보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영웅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여 집계한 후, 11월 말 쯤 건의용위영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형식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용감한 시민상(혹은 '의사상자')'과 비슷한 개념과 의도로 진행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²¹⁾ 2006년 11월 20일 "제10회 전국 건의용위 영웅" 대회가 북경에서 거행되어 전국 건의용위 '영웅'10人(단체 포함), '선진분자', '공작선진단위', '선진공작자' 등을 표창하였다.²²⁾

아울러 2004년 국무원이 반포한 「건의용위 기금회 관리조례」에 따라 각 도시마다 기금회가 설립되고, 모아진 기금을 해당자에게 분배해오고 있다. 남을 위해 희생한 영웅은 모두가 보호해야 하고, 그들의 영웅적 행위를 보고 배우는 동시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자는 것이다.

한편 표창과 상금 등이 아닌 또다른 방법을 통해 이타적 행위를 격려하기도 한다. 바로 '건의용위'한 당사자나 그 자식에게 입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정책이다. 2003년 福建省은 "건의용위선진분자의

21) 작년 개최한 제 10회 대회는 10월 16일 까지 투표를 하였다. 투표 기간 동안 신문에는 중국 국민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고, 중국 국영방송국 채널 12(CCTV-12)의 『道德觀察』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의로운 인물들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 정신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9월 30일 18시 30분에 『국민영웅2006(百姓英雄2006)』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였다. 新浪網 <http://news.sina.com.cn/o/2006-09-29/080310136873s.shtml>

22) '건의용위'에도 차등이 있다. 2006년의 경우 건의용위'영웅'(10人.단체포함)은 표창장과 증서외에 격려금 인민폐 5만원, '선진분자'(38人.단체포함)은 표창장과 격려금 3만원, '선진단위'(13개 단위)는 칭호와 상패, 증서, '선진공작자'(61인)는 상패와 증서가 수여된다. 「10人被授予“見義勇爲英雄”称号 每人獎5萬元」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legal/2006-11/20/content_5352513.htm

자녀에게 고입 대입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²³⁾. 0.1점의 극히 미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입학시험에서 무려 10-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정책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오직 하나뿐인 ‘小皇帝’에게 모든 것을 거는 현대 중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²⁴⁾를 낳음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토 여론이 일어났다.²⁵⁾ 표창이나 처벌 등 응분의 댓가가 주어지는 제도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제도화한 징벌기제, 상응하는 제도적 보장이 보장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을 위한 희생’이나 출선수범 등의 이타적 사례보다는 무관심, 방관, 불법적 이익 추구 사례들을 훨씬 가까이에서, 훨씬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현상이 아닌 현대사회의 보편적 속성이다. 단체나 사회는 구성원의 조화와 응집을 생명으로 하기에 타인과의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상실한 구성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대 각 국가의 정부와 단체 등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운동을 펼치는데 주력한다. 현대 중국의 ‘의로운 영웅’의 선정과 표창 역시 이런 측면에서 對 국민 정신교

23) 「福建省2003年高招加分政策有5大變化」“獲得福建省見義勇爲先進分子的考生或子女可享受加20分照顧，設區市表彰的見義勇爲先進分子的考生或子女可享受加10分。”
<http://edu.sina.com.cn/l/2003-03-04/38875.html> ”

24) 福建省 南平市 인민검찰원 助理檢察員인 任建平은 2003년 8월 14일 물에 빠진 여인을 몇몇 사람들과 힘을 합해 구해주었다. 그런데 2005년, 건의용위 당사자와 자녀에게 입학시험 가산점을 준다는 기사를 보고는 2년 전의 구조 행위를 인정받으려 시도했다. 심사 끝에 난평시 공안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조사와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건의용위” 자격을 얻기 위한 중국 최초의 송사사건이 됨으로써 입학 가산점 정책과 함께 “건의용위”행위에 대한 격려와 표창활동,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정신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된 것이다.

「爲兒子高考加分而見義勇爲？」
<http://www.edu.cn/20060712/3199502.shtml>

25) 혜택을 받기 힘든 대다수 푸젠성 주민들은 가산점제도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푸젠성 관련기관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福建見義勇爲者及其子女高考加分政策不變」, 2006년 10월 19일
http://www.fj.xinhuanet.com/shzx/2006-10/19/content_8300024.htm

육, 홍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Ⅲ. 公民敎育의 강화 - ‘社會主義 榮辱觀(8榮8恥)²⁶⁾

인간성 상실과 도덕적 위기를 감지하게 해주는 사건이 자주, 많이 발생할수록 ‘문명과 예의’·‘사회주의 영욕관’·‘공민도덕건설’·‘국민성 개조’ 등의 단어들 이 언론과 방송매체를 더욱 자주, 많이 장식한다. 그것은 바로 인문정신과 도덕의 위기가 중국의 경제도약과 사회주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인민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상적·인성적 측면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민성 개조운동’이나 공민교육과 같은 맥락에 있다. 비록 언급한 사건들이 당대 중국의 보편적,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고 한결음 물러날지라도 문명 선진국을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 분명 영광스러울 것이 없는 ‘치욕’임이 분명하다. 胡錦濤 정부의 공민교육(사회주의 영욕관)은 바로 이러한 인도적 수치심과 뼈격거리는 소강사회 꿈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²⁷⁾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민의식’을 지닌 ‘공민’을 양성하는 ‘공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건국 후 공산당을 지상 최고의 절대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26)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랑스러워 할 것’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영욕관’이라 불리기도 하고, 8가지 영예로운 것과 8가지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에서 ‘八榮八恥’라 칭해지기도 한다.

27) “八榮八恥社會主義榮辱觀,不僅是對當代中國道德觀的精辟概括”(蔣玉林, 「“八榮八恥”:中國現代意識的自我認知」, 『實事求是』2006년 제5기)/ “八榮八恥抓住了當前人民群眾普遍關注的社會現實問題”(潘建紅, 「社會主義榮辱觀:公民道德教育的新視野」, 『武漢理工大學政治與行政學院』, 2006년 제12기), 등의 인식 역시 그들의 어두운 현실을 간파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평가일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을 통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체라는 주체의식과 ‘공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길러주지 못했고, 정치로부터 멀어져야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치환경 역시 무관심과 이기심을 양성하는데 일조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수천년간의 봉건시대 뿐 아니라 신중국 성립 이후까지도 중국사회에서 국가·민족·단체는 항상 중심에 자리했으며, 개인은 제 가치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왔다. 국가와 정치의 주체가 배제된 중국의 상황은 그들의 정치와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산당 유일 체제의 정치구도와 관본위 정치문화는 개인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억제했으므로 오히려 의타적인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인간 개체에 대한 경시는 타인의 생명과 위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되는 방관적 풍조로 표출되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현 중국 정부는 공민으로서의 권리 획득과 자유로운 참여가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소임을 자각하게 되고, 이에 중국 인민들에게 국가의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공민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특히 ‘WTO 가입’을 통해 추진력을 얻었다. 세계 보편적 규율에 대한 준수를 기본으로 하는 WTO 가입은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사회의 제반 인식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틀이 갖추어져야 ‘지구촌 구성원 되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정치문화, 정치인식 교육을 겸행했고, 이를 통해 점차 새로운 정치풍토, 즉 ‘WTO형 정치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²⁸⁾

지금 중국사회는 관본위문화에서 국민의 권리가 인정받고, 국민

28) 오일환,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정치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29권, 2002년 6월. pp. 337-349 참조

이 주체가 되는 권리문화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인식된다. 과도기를 잘 넘겨 사유방식을 현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²⁹⁾ 선진국과의 차이는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바로 ‘공민의식의 차이’라는 정책 주도층의 인식³⁰⁾은 교육정책의 변화에 가속도와 추진력을 붙여줄 것이다. 2006년부터 일부 초중등 교육기관에 공민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처음으로 초중등 공민교육 교재인 『新公民讀本』을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발간하였다.³¹⁾ 또한 「공민도덕건설실시요강」을 반포하기도 하는 등 주체적 능동적으로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양성하는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胡錦濤는 2006년 3월 4일 전국 정협 제10회 4차회의 민맹민진계 위원들과의 연합토론회에서 사회주의 중국 인민이 ‘부끄워 해야 할 것(恥)’과 ‘자랑스러워 할 것(榮)’을 각각 8가지로 선정하고, 온 인민이 생활화할 것을 제기하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봉사(以熱愛祖國爲榮、以危害祖國爲耻, 以服務人民爲榮、以背離人民爲耻), 과학과 지식 추구(以崇尚科學爲榮、以愚昧无知爲耻), 성실한 근로와 분투노력 정신, 근검절약(以辛勤勞動爲榮、以好逸惡勞爲耻, 以艱苦奮鬥爲榮、以驕奢淫逸爲耻), 준법정신과 신용(以誠實守信爲榮、以見利忘義爲耻, 以遵紀守法爲榮、以違法亂紀爲耻), 단결과 협조,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以團結互助爲榮、以損人利己爲耻) 등, 한 국가의 국민과 한 사회의 공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와 덕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29) 李啓詠, 「論民主教育」, 『中國普法網』 (<http://www.legalinfo.gov.cn>)

30) 중국과 서구 선진국의 차이는 국민의 수준 차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일찍 제기되었다. 덩샤오핑의 정책고문을 지낸 李慎之는 『改革』과의 1997년 11월 2일의 좌담회에서 “千差距、万差距, 缺乏公民意識, 是中國與先進國家最大的差距.”라는 의견을 표명했고(「公民教育之必要」, 『教育科學論壇』 2003년 제6기 北京万方數據(<http://scholar.ilib.cn/Abstract.aspx?A=jiaoszy200306001>), 이는 후진타오의 사회주의영육관의 직접적 제기의 배경이 된다.

31)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공민교육’ 항목 참조

목적은 ‘사회주의 현대화’, 즉 중국식 사회주의의 성공적 실현,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소강사회 건설이라 하겠다. 胡錦濤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위한 제안은 보도 매체들을 통해 발표된 후 각 지역과 단위·단체·기구 등에서 선전 교육되면서 큰 반향과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16 구절에 담긴 내용은 보편적이고도 상식적이어서 중국 현대사에서 반복되어온 사회주의 정신문명운동³²⁾의 연장으로 느껴진다. 사회 구성체로서의 일반적 책임과 생활태도 뿐 아니라, 당원과 간부·학생과 청소년·근로자·個體戶나 사영업자 등 계층이나 대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좀더 구체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획기적 내용이나 요소가 발견되지 않기에 사회주의 영욕관의 제기에 대한 중국언론계와 학계의 반응이 호들갑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불구조죄 입법’이나 ‘의로운 영웅 표창’ 등이 구성체로서의 단결·상호부조·헌신과 솔선수범 등의 전통적이고 낮은 정신적·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라면, ‘8영8치’는 현재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 특히 경제적 사회 구조의 변화를 좀더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16개 구절 대부분이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형태의 전개와 성공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 국민 행동선언 같은 첫단락(“以熱愛祖國爲榮、以危害祖國爲

32) 1949년 ‘五愛’(愛祖國、愛人民、愛勞動、愛科學、愛護公共財物)로 시작된 사회주의 도덕 건설 움직임은 그 후로도 약간씩 덧붙이거나 수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개혁개방의 정착과 효과적 실행을 위해 鄧小平에 의해 제기된 ‘五講四美三熱愛’(講文明、講禮貌、講衛生、講秩序、講道德、心靈美、語言美、行爲美、環境美、熱愛祖國、熱愛人民、熱愛中國共產黨),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적용, 안정기에 접어들어가자 제기된 江澤民 지도부의 ‘五愛三德’(愛祖國、愛人民、愛勞動、愛科學、愛社會主義、社會公德、職業道德、家庭美德) 운동 등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전제가 ‘도덕적인 사회주의적 공민’을 배양하는 것임을 말한다.

耻, 以服務人民爲榮、以背離人民爲耻”)도 실은 “조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며, 인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치욕스러워해야 할 일”이라는 ‘경제적’ 층차의 당부와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망각하는 행위, 법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以危害祖國爲耻·以背離人民爲耻·以見利忘義爲耻·以違法亂紀爲耻·以損人利己爲耻) 등 부정부패 현상에 대한 경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겠다.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서는 富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적 현실적 명제와 평등·조화·公富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의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³³⁾ 그 충돌과 갈등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자에 몰입한다. 그들은 방관풍조와 이기주의, 몰신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창고가 차야 예의를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管子』 「牧民」편.)”는 유서깊은 면죄부를 내밀기도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제도나 법률적 측면에서 완정하게 보완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법적 미비의 틈새를 통해 致富의 욕망이 부정부패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³⁴⁾

33) “這樣一種既確証又批判的矛盾態度,使得中國人在現代化進程中始終遭遇現實與理想的双重壓力。... 現實中,我們願意接受市場經濟,刺激人們去追求交換價值,從而推動生產力的發展但不得不面對各種各樣的消極後果。...理想中,我們願意實現社會平等、人際和諧和共同富裕但不得不面對陷入烏托邦的危險。” 蔣玉林, 「“八榮八耻”:中國現代意識的自我認知」, 『實事求是』2006年 第5期

34) 가장 큰 원인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시장경제의 ‘시장성·독립성·자주성·적극성’ 등을 중점 강조하고, 타인과의 조화, 합작, 의무 등을 홀시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不少人把我們國家的市場經濟與西方國家的市場經濟混爲一談,只強調了社會主義中的市場經濟的一面,忽視了不斷提高人民的物質文化水平這個社會主義生產的根本目的只強調市場經濟發展中對個人作爲市場活動主体的獨立性、自主性和積極性,對個人利益的肯定和保護的一面,而忽視了市場經濟中對個人與他人協調、合作的一面,對社會、對國家應盡義務的一面,忽視了利他是利己實現的必不可少的前提和基礎。”(孫紅軍, 「“八榮八耻”的政治解讀」, 『蘇州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3卷 第3期, 9-10쪽) 따라서 8영8치의 “以團結互助爲榮、以損

날로 심해지는 부정부패 현상³⁵⁾, 특히 고위층의 이러한 부정행위는 ‘조화로운’ 소강사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절대적 요인으로서 사회주의영욕관을 제기하게 하는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였다. 집권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금전’과 등가교환함으로써 빚어지는 부패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에 커다란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사회의 응집과 조화에 치명적 정신적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이다.³⁶⁾

현재 중국 집권층의 부패행위는 경제범죄의 수위를 차지하며, 그 비중 또한 막중하다.³⁷⁾ 국가 전체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패 현상은 정부나 당 차원의 우려를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사회주의 영욕관이 제기와 동시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중국의 정치환경은 변하고 있다. 평화적 절차를 밟아 국정을 담당하게 된 중국 최초의 정치지도부 체제인 후진타오의 제4지도부는 依法통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지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³⁸⁾ 법에 의한 통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人利己爲耻” 구문도 경제적 층차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

35) 1994년이래 전국 범죄사건에서 경제분야의 사건은 전체 사건의 42%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에만 도 100만위엔이상의 경제사건이 1652건이었고, 그중 1천만위엔 이상의 특대경제사건이 211건, 1억만위엔 이상의 규모 사건은 33건이 있었다. 潘克. 「加强党風廉政建設与治理腐敗問題的思考」, 中國社會科學院 長春分院(<http://www.ccb.ac.cn/shownews.asp?id=1699>)

36) “腐敗究其本義來說,是指政府公職人員的行爲違背既定的行爲規則和价值准則謀求个人或小團體的私利并損害了國家和社會公共利益...其最基本的体现形式就是權錢交易,如上文所提及的本該在市場經濟領域里才通行的“等价交換”原則被一些人搬到了政治領域,搞起了權和錢的“等价交換”。孫紅軍, 「“八榮八耻”的政治解讀」, 『蘇州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23卷 第3期

37)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집권층의 2000년 중국 자본의 해외도피 총액은 이미 480억달러에 달하여, 당해 연도 외국의 중국투자비용인 407억달러를 17.9%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潘克. 「加强党風廉政建設与治理腐敗問題的思考」, 中國社會科學院 長春分院 (<http://www.ccb.ac.cn/shownews.asp?id=1699>)

것은 평등의식, 경제적 차원의 공평한 기회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근로와 준법, 게으름과 이기심에 대한 경계(以辛勤勞動、遵紀守法、誠實守信爲榮,以好逸惡勞、違法亂紀、見利忘義爲耻) 등의 구절은 성실한 구성원, 順民 양성의 전형적 구절로 읽혀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또한 소수 특권계층이 노동의 ‘결과(富)’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경고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태만과 나태를 치욕으로 여기자는 슬로건은 성실한 근로를 통해 결과물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회 전체가 비판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평, 정의로움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선부론’만 강조하고 ‘공동 향유, 치부’는 도외시하는 행위는 개혁 개방과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는 인민 대다수를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에도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 공민교육현장과 큰 변별점을 찾기 힘들지만, ‘8영8치’는 공민정신과 태도를 경제적 층차에서 논하고 있다. 일부 중국학자들이 사회주의 영욕관의 궁극목적은 경제 발전과 효율을 위한 것으로 보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³⁹⁾

IV. 나오는 말

38) 胡錦濤는 「헌법공포시행 20주년대회 강화」에서 ‘법에 의거한 정치(依法治國)’를 실행하기 위해 헌법을 철저히 지켜 시행하고, 헌법에 대한 교육(특히 지도적 지위에 있는 간부, 국가공무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胡錦濤, 「全面貫徹實施憲法, 爲全面建設小康社會提供堅實法律保障」, 『人民日報』2002년 12월4일.

39) “八榮八耻是經濟更快更好發展的迫切要求.” 隋忠誠, 「社會主義榮辱觀是多元時代的精神訴求」, 『理論前沿』, 2006年 第10期, 28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 속도 만큼이나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풍요 속의 불안과 소외, 도덕적 타락, 인문적 관심의 枯死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내부에서 뜨겁게 논의되어 왔다.⁴⁰⁾ 특히 90년대를 달구었던 “人文精神” 논쟁은 시장경제체제의 전개에 따른 문학의 상품화, 작가정신의 황폐화, 엄숙문학의 퇴조, 저급한 대중문화의 확산을 우려한 지식인들의 對 사회적 비판 담론이다.⁴¹⁾ 문화영역의 ‘가벼워지기’가 주류적 풍조를 이루게 되고, 오락지상주의, 玩世주의 등 진지하지 못한 풍조가 위세를 떨치면서 사회주의 사유체계와 도덕적 권위 역시 무장해제되버린 것이다.⁴²⁾ 인문정신 논쟁 역시 지식인들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자아비판적 성격을 지닌 논쟁이었지만, 그 논쟁의 발단은 배금주의, 실용주의 등 자본주의 경제논리의 부작용과 그로 인해 빚어진 무관심·이기심 등 인간정신과 도덕의 타락에 대한 불안과 우려였다.

중국식 사회주의 실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중국의 현대화기획 실천에 있어 선결조건이자 궁극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 사회가 조화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성원의 사유체계의 건전성이나 도덕적 자질과 큰 관계가 있다. 공동의 이상과 신념, 도덕규범은 조화로운 사회의 필수요건이고,⁴³⁾ 때문에 사회주의영육관은 ‘조화’를

40) 중국 지식계는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문제 및 각 문화면에서의 자유로운 사상의 토로를 통해 문제를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反思문학론, 人性論, 주체성논쟁, 문화열 현상, 인문정신 논쟁 등은 이를 대변한다. 이는 전통과 현대에 대한 고민, 민족과 사회주의를 동시에 살리는 방법론에 대한 총체적 고민의 발로라 할 수 있다. 劉世鐘, 「현대 중국에서의 계몽의 성격과 지식인의 역할」,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집, 1998년 12월, 180쪽

41) 王曉明 주편, 『人文精神尋思錄』, 文匯出版社, 1996. 한국에서는 이 중 7편의 대표적 논문과 추가로 다른 곳에 수록된 두 편을 더 번역해 넣은 『인문학의 위기』(백원담 등 편역, 푸른숲, 1999)가 나와 있다.

42) “在文化領域則流行着那种消解主流、娛樂至上、玩世不恭的輕佻作風, 那种油腔滑調的无厘頭, 嘩衆取寵的噱頭, 拿肉麻当崇高, 无情地消解了主流思想道德的權威力量.” 符惠明·羅志勇, 社會主義榮辱觀与民族精神的培育,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2006年 第4期

43) 胡錦濤, 『在省部級主要領導幹部提高构建社會主義和諧社會能力專題研討班上的講話』

위한 응집력, 그 응집을 위한 정신적 중심 사유체계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⁴⁴⁾

“사회주의 영욕관을 확립하자(牢固樹立社會主義榮辱觀)”는 제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국사회와 중국인의 정신과 도덕에 관한 문제의식과 위기감의 발로이다. 때문에 중국인의 정신과 사상 바로 잡기가 21세기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언론매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8榮8恥’ 역시 소강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적인 문화와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올바른 사상과 도덕을 건설하고 교육과 과학 문화를 발전시켜 도덕적이고 문화적이며 체제를 갖춘 사회주의 공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개략할 수 있겠다.⁴⁵⁾

그러나 전술했듯이 도덕적이고 인문적인 고상한 목적 뒤에는 중국의 비약적 경제발전과 풍요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직접적인 목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도덕적 경구 속에는 역으로 그런 자들에 의해 자기 이익을 손해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제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영욕관은 이익에 대한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거국적 감시와 비판의 기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영욕관은 제기된지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선전과 홍보·교육 단계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지도부가

44) “胡錦濤關於樹立社會主義榮辱觀的講話¹⁾是指導我們新時期物質文明、政治文明、精神文明與和諧社會建設，特別是加強思想道德教育的重要指針。倡導和樹立社會主義榮辱觀，加強和改進公民思想道德建設，提升全民族綜合素質，培育健康俊朗的民族精神，增強民族凝聚力。”符惠明·羅志勇，「社會主義榮辱觀與民族精神的培育」，《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2006年 第4期

45) “全面建設小康社會、加快推進社會主義現代化，要求我們必須把發展社會主義先進文化放到十分突出的位置，着眼于提高人的素質、促進人的全面發展，加強思想道德建設，發展教育科學文化，培育有理想、有道德、有文化、有紀律的社會主義公民。”胡錦濤在“國政協十屆四次會議民盟、民進界委員聯組討論”에서 발언한 강화를 정리한 신문기사 보도。(人民網 <http://www.people.com.cn>. 2006년 5월 2일)

주도하는 정신문명 운동에 대해 언론이나 학계의 비판적 시선은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언론과 학계는 사회주의영육관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여론선도와 당의 영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⁴⁶⁾ 정보 공개, 쌍방 소통, 자유로운 의견 수렴이라는 현대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현대적 매체조차도 전통적이고 낮은 역할, 즉 ‘당의 대변자(党的喉舌)’역할을 요구당한다. 때문에 사회주의영육관 실천을 위한 지도부의 처벌과 독려는 propaganda 차원의 정치적 宣傳의 의심을 벗어나 버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아울러 사회주의 영육관 확립의 목표가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 창조일 개연성도 많다.

현대사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익실현에 모든 목적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공익심이 날로 모호해지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을 정신적 독려와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인민의 법치의식을 제고시키려면 선전교육과 동시에 법제건설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연대감과 국민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실행화해야 할 것이다.

46) “轉變社會風氣，輿論是導向，領導示范是關鍵。”隋忠誠，「社會主義榮譽觀是多元時代的精神訴求」，『理論前沿』2006年 第10期，29쪽. “社會主義榮譽觀的樹立和民族精神的培育，離不開正確的輿論導向。”符惠明·羅志勇，「社會主義榮譽觀與民族精神的培育」，『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2006年 第4期

참고문헌

【국내논문】

오일환,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정치 문화변동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29권, 2002

유세중, 「현대 중국에서의 계몽의 성격과 지식인의 역할」,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집, 1998

【국내신문기사】

「사회 정의감 不在, 중국사회 충격-베이징 726번 시내버스 승객들은 이 소녀가 목 졸려 죽는 걸 구경만 했다」, 『조선일보』, 2005년 12월 19일

「중국, 시민의식 실종 개탄」, 2006년 12월 12일 (YTN뉴스 <http://www.ytn.co.kr>)

「기사 폭행에 외면하는 승객! 시민정신 실종」 2006년 12월 12일 (SBS 뉴스 <http://www.sbs.com>)

【중국서적】

『人文精神尋思錄』, 王曉明 주편, 文滙出版社, 1996

『中國教育改造』(“民國學術經典文庫”), 東方出版社, 1996

沈其新, 『永恒的生命線 - 中國共產黨八十年思想工作史的回眸與前瞻』, 湖南大學出版社, 2001

『八榮八耻黨員幹部讀本』, 紅旗出版社, 2006

羅國杰. 『思想道德修養』, 北京, 人民大學出版社出版, 2002

李德順·孫偉平, 『道德價值論』, 昆明, 云南人民出版社, 2005

中共中央政策研究室、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江澤民論加強和改進執政黨建設(專題摘編)』, 北京, 中央文獻出版社、研究出版社, 2004

中央文明, 『社會主義精神文明建設概論』, 北京, 人民出版社, 2005

【중국논문】

譚云勤·沈其新, 「八榮八耻: “生命線”的新活力」, 『湖南社會科學』, 2006년 제4기

党胜利·王紅軍, 「論社會主義榮辱觀的哲學基礎」, 『党史文苑(學術版)』, 2006년 제16기

童慶平, 「樹立“八榮八耻”榮辱觀-建設社會主義新農村」, 『學術論壇』, 2006년 제12기

董德存, 「樹立正确的榮辱觀-扎實做好群衆工作」, 『胜利油田党校學報』, 2006년 제19권 제3기

厲以宁, 「關於教育產業的几个問題」, 『高教探索』, 2000년 제4권

路文彬, 「論20世紀中國文學中的羞耻感問題」, 『學術季刊』, 2002년 제4기

劉次林, 「自我擴展的德育」, 『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2000년, 제18권 제3기,

李建華·易想和, 「論社會主義榮辱觀的主体層次性」, 『倫理學研究』, 2006년 제3기

李宏偉·宋洁, 「明于羞耻慎于言行-試論“八榮八耻”中“羞耻觀”的時代意義」, 『法制與社會』, 2006년 제8기

李保强·滕秀芹, 「助人不樂現象歸因分析与社會德育管理導向問津」, 『教育理論与實踐』, 2003년 제23권 4기

潘建紅, 「社會主義榮辱觀:公民道德教育的新視野」, 『武漢理工大學政治與行政學院』, 2006년 제12기

符惠明·羅志勇, 「社會主義榮辱觀与民族精神的培育」,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2006년 제4기

常智敏, 「社會主義榮辱觀解讀」, 『社會主義研究』, 2006년 제6기

孫紅軍, 「“八榮八耻”的政治解讀」, 『蘇州科技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23권 제3기

隋忠誠, 「社會主義榮辱觀是多元時代的精神訴求」, 『理論前沿』, 2006년 제10기

- 柴秀波·王愛民, 「從社會主導意義系統的角度看“八榮八耻”的時代意義」, 『牡丹江教育學院學報』, 2006년 제6기
- 楊麗坤, 「關於社會主義榮辱觀建設的社會調控機制的思考」, 『河北學刊』, 2006년 제5기
- 王露璐, 「社會主義榮辱觀:民族性、時代性與實踐性的有機統一」, 『江蘇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년7기
- 詹三瑞, 「由“五愛”到“八榮八耻”」, 『陝西煤炭』, 2006년 제3기
- 張康之, 「道德整合:社會公平與社會秩序獲得的根本出路」, 『學習與探索』 2002년 제1기
- 張國臣, 「社會公德與構建和諧社會」,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년 제7권 제3기
- 蔣玉林, 「“八榮八耻”:中國現代意識的自我認知」, 『實事求是』, 2006년 제5기
- 鄭永念, 「中國應追求文化崛起」, 『參考消息』, 2006년, 3월 23일
- 鄭俠, 「刑法中應設立‘見危不救罪’」, 『銅陵學院學報』, 2004년 제1기
- 趙劍民, 「文化視野中的社會主義榮辱觀」, 『思想教育研究』, 2006년 제9기
- 曹蓓蓓·潘鵬, 「歷史的必然時代的召喚—論樹立社會主義榮辱觀」, 『理論探索』, 2006년 제3기
- 陳延斌, 「建構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的道德體系論要」, 『道德與文明』, 2002년 제2기
- 陳仁濤, 「試論社會主義榮辱觀的科學思想內涵」, 『黨史文苑』, 2006년 제24기
- 陳忠紅, 「傳統文化與社會主義榮辱觀」, 『中華女子學院山東分院學報』, 2006년 제2기
- 蔡文, 「從培養“四有新人”到以人為本—論“八榮八耻”對思想政治教育理念的創新」, 『現代企業教育』, 2006년 제7기
- 戚萬學, 「關於建構中國現代道德教育理論的幾點設想」, 『教育研

究』,1997년 제12기

韓振峰, 「确立社會主義榮辱觀需要消除的“認識誤區”」, 『道德与文明』,2006년 제4기

胡錦濤. 「牢固樹立社會主義榮辱觀」, 『求是』, 2006년, 제9기

扈中平·劉朝暉, 「對道德的核心和道德教育的重新思考」, 『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2001년 제6기

黃岩, 「孟子的“榮辱觀”及其当代啓示」, 『河北學刊』, 2006년 제5기

【중국신문기사】

「修改憲法與公民教育」, 『改革』, 1997년11월2일

「全面貫徹實施憲法, 爲全面建設小康社會提供堅實法律保障」, 『人民日報』, 2002년 12월4일

「女孩公廁內被拾荒男子強奸 40余人圍觀無人制止」, 『燕趙都市報』, 2005년4월26일

「第十屆“全國見義勇爲英雄”事迹」, 『光明日報』, 2006년 11월 21일

【중국 인터넷사이트】

鄧海建, <“見死不救罪”是道德問題“泛法律化”> 國際在線
(<http://news.qq.com>), 2004년 12월 16일

「圍觀強奸能讓40看客獲得快感?」, 人民網
(<http://www.people.com.cn>), 2005년4월27일

「消防隊見死不救与消防隊的現實困境」, <http://news.163.com>
2005년 9월 9일

「誰使見義勇爲英雄泪滿襟?」, 新華網(www.xinhuanet.com), 2005년10월12일

「清華教授女儿与公交车售票員發生冲突后喪命」, 新華網
(<http://www.xinhuanet.com>.)2005년 10월 12일

「違規查車釀故見死不救 交警副站長逃逸被判刑」, <http://news.163.com>, 2005년 11월 4일

「胡錦濤榮辱觀重要講話在天津市引起強烈反響」, 北方網
(<http://www.enorth.com.cn>), 2006년 3월 9일

「高校要成榮辱觀教育陣地－學習胡錦濤榮辱觀論述」, 北京科技大學經濟管理學院學生工作網站(<http://www.5im.cn>) 2006년 3월 17일

「總校通知要求學習貫徹胡錦濤“榮辱觀”重要文章」, 人民網
(<http://www.people.com.cn>) 2006년 5월 2일

「見死不救跟湖南人的“血性”無關」, 騰訊新聞(<http://news.qq.com>),
2006년 5월 19일

「這樣才能讓“英雄流血不流淚。”」, <http://news.sohu.com>, 2006년
5월 22일

「10人被授予“見義勇為英雄”称号,每人獎5萬元」, 『中國江西新聞網』
(<http://www.jxcn.cn>) 2006년 11월 21일

薛來彩, 「也說“現代看客”」, 『南京師範大學報(인터넷판)』
(<http://www.cunews.edu.cn>)

「武漢公交車司機被歹徒暴打」 新浪網(<http://www.sina.com.cn>)

「胡錦濤榮辱觀講話在教育界引起強烈共鳴」, 中國教育和科研計算器網(<http://www.edu.cn>)

「中國古代法關於復仇的規定」,
好律師網(http://www.haolawyer.com/article/view_2243.html)

童蒙, 「從“道德淪喪”到“天災人禍”之二」, 未來中國論壇
(<http://bbs.futurechinaforum.org>)

李啓詠, 「論民主教育」, 中國普法網(<http://www.legalinfo.gov.cn>)

中國教育和科研計算器網(<http://www.edu.cn>)

위키피디아(wikipedia <http://www.wikipedia.org>)

Abstract

A study on the "Eight Honor and Eight Disgrace"

Chun Hyun – Kyung

China's present development is so dazzling. However, the speed of development in social aspects, civil consciousness(citizen consciousness) in particular, is slow compared to the rapid development in economic fields.

Consciousness about the society where they live together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ocial consciousness as a member of the society have not developed yet, which leads to negative attitudes such as indifference and passiveness.

Led by Hu Jintao, the Chinese government is promoting a nationwide campaign called "Socialistic View on Eight Honors and Eight Disgraces" in order to improve this social trend.

Key words : Eight Honorable Things and Eight Disgraceful Things of Socialism, Civic Education, a renewal of public spirit, Shaokang Society(a relatively well-off society), unterlassene Hilfeleistung